



아트인컬처
January 2014

ANNUAL REPORT

지리적 경계가 사라진 글로벌 아트씬

한국작가의 각종 전시가 세계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다. 해외 레지던시에 참가하는 국내작가도 부쩍 늘었다. 국내에서도 컨템포러리 아트씬을 이끄는 ‘거장들’의 개인전을 비롯해, 네덜란드 중국 독일 등 특정 국가의 현대미술 경향을 선보이는 그룹전까지 다양한 전시가 개최됐다. 국제 컨템포러리 아트씬의 넓은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는 ‘축제의 장’ 비엔날레에서는 또 어떤 교류가 있었을까?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뜨거운 미술 현장을 진단한다.

세계로 뻗는 한국미술

수많은 국내작가들이 해외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국내 아트씬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님을 입증했다. 이주요 김소라 이불 김수자 양혜규 권오상 등 해외 주요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굵직한 개인전을 개최한 것. 이주요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반아베미술관에서 개인전 <월즈 투 토크 투(Walls To Talk To)>(1. 26~5. 12)를 개최, 4개월 동안 네덜란드에 체류하면서 제작한 장소특정적 작품을 선보였다. 덴마크 쿤스트할샤를로텐보르그에서는 김소라의 개인전 <쓰리 풋 워킹(Three Foot Walking)>(9. 20~11. 17)이 열렸다.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인간의 몸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탐색했으며, 단순한 동작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달했다. 이불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무담(10. 5~2014. 6. 9), 김수자는 캐나다 벤쿠버아트갤러리(10. 11~2014. 1. 26), 양혜규는 노르웨이 베르겐쿤스트할(10. 18~12. 22),

권오상은 싱가포르 테뎃공아트스트인레지던스(10. 27~12. 1)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개인전 이외에도 대규모 기획전이 열려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 필리핀 마닐라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기획된 <한국현대판화 50년>전이 열렸다. 시대별 주요 판화 작품 88점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현대판화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했다. 루마니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비디오작가 영상>(5. 9~6. 9)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뒤얽힌 한국 현대사회의 얼굴을 포착한 작가 7명의 비디오아트 작품을 소개했다. 이 전시는 부쿠레슈티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와 하이너 홀트아펠, 양지운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했다. 한중일 작가의 서화를 소개하는 <동북아시아로의 여행(Journey to Northeast Asia)>(10. 9~31)이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한중일 미술 작품의 미학적 형식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 팔레드도쿄에서는 김해주가 기획한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6. 21~9. 8)전이 개최됐다. 서울시립미술관과 파리 팔레드도쿄의 국제교류 협력 프로젝트 ‘누벨 바그(Nouvelles Vagues)’에 선정된 전시로, 김소라 남화연 차학경의 작품을 통해 전시장을 기억이 재생되는 공간이자 산책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국내 주요 미술관에서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전이 열려, 다른 문화권의 작가, 큐레이터와 소통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시간 진행된 교류 ‘과정’ 자체에 중점을 뒀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았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동시대 중국미술 작가 8명의 작품을 선보인 <@What: 신중국미술>(2. 5~3. 31)을 개최했다. 중국미술관과 아르코미술관이 공동 기획했으며, 쉬빙, 마오 샤오충, 리후이, 원링 등이 참여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선보인 <네덜란드에서 온 새로운 메시지>(8. 14~10. 30)는 네덜란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문학적 고찰을 담은 디자인의 가치에 주목했다. <트란스페어 한국-엔에르베>는 2011년부터 시작돼 3년에 걸쳐 진행한 한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이의 국제교류 행사다. 한국과 독일에서 선발된 총 14명의 작가는 상대국을 방문, 그 지역 큐레이터와 비평가를 만나 작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도록을 발간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독일 본미술관 등 총 6개의 기관에서 결과보고전을 열었다.

전시 이외에도 해외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작가가 꾸준히 증가했다. 강지운(대만 TAV), 노유희(파리국제예술공동체), 백현주(아이슬란드 SIM), 김은정(도쿄 원더사이트), 배고은 안지산(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천영미(영국 가스웍스) 등 많은 한국작가가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작가뿐만 아니라 김현진(홍콩 파라사이트), 이혜진(베이징 송장미술관), 손세희(북유럽)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큐레이터도 해외 리서치 레지던시에 참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와 큐레이터에 경제적 지원을 해 해외 파견에 날개를 달아줬다. 전시 지원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가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한국미술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의 꽃, 비엔날레

2013년에는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6. 1~11. 24)가 ‘백과사전식 궁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은 비엔날레 공식 부대행사로 <Who is Alice?>를 개최했다. 소장품 7천 여 점 중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품 30점을 추려 소개했다. 신보슬 큐레이터는 베니스비엔날레 위성전시로 <이미지 물물교환센터(Barter Center for Images)>를 기획했다. 호텔 아마테우스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김기라 김도균 김용관 노순책 임민욱 장지아 등 총 16명의 작가가 참여해 직접 제작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관객과 교환했다. 한편 베니스에서 멀지 않은 파도바 시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 두 거장의 만남: 김영원-피노티>(6. 1~8. 20)가 열렸다. 인체를 소재로 한 노벨로 피노티와 김영원의 작품을 파도바 시청광장, 에레미타나시립미술관 등 시내 곳곳에 전시해 한국조각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에는 총 88개국이 참여했다. 각 국가관에서는 사라 제(미국), 마티아스 폴레드나(오스트리아), 제레미 델러(영국), 다나카 코기(일본) 등의 작가를 개인전의 형식으로 소개했다. 한국관의 커미셔너를 맡은 르콩소르시움의 디렉터 김승덕은 한국관에서 김수자의 단독 전시를 꾸렸다. 전시의 컨셉트는 김수자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소재로 삼아온 ‘보따리’였다. 한국관의 건물을 보따리 개념으로 파악해 바깥과 실내를 구분하는 건물의 외벽에 반추명 필름을 붙였다. 필름을 통과한 자연광은 무지개색의 빛을 발했다. 그 외에도 숨소리를 녹음한 사운드 퍼포먼스와 모든 빛을 차단한 전시장 등 비가시성이 강조된 작품을 선보여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비엔날레 폐막 후 12월 23일 예술가의 집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발자취를 살피고,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부에는 커미셔너 김승덕과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용우가 기조 발제를 했다. 2부는 현장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위크온워크, 김해주, 김현진, 최빛나, 이추영이 참여해 베니스비엔날레와 한국 미술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열린 각종 비엔날레도 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능했다. 평창비엔날레(7. 20~8. 31), 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8. 30~10. 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9. 6~11. 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9. 11~10. 20), 바다미술제(9. 14~10. 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9. 28~11. 17),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10. 1~11. 15) 등 디자인, 공예 등 장르별로 특화된 비엔날레가 두드러졌다. 2014년에는 제시카 모건, 올리비에 캐플랑, 박찬경이 각각 예술감독을 맡은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 굵직한 비엔날레가 개최를 앞두고 있다.



위 · 룩셈부르크 무담에서 열린 이불 개인전 전경
아래 · 덴마크 쿤스트할샤를로 텐보르그에서 열린 김소라 개인전 전경